

수은-대외경제협력기금 이집트 철도 현대화 3700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함께 이집트 남부 룩소르-하이담 구간(224km) 철도 현대화사업에 약 3억1225만달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이번 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수은자금(EDPF)이 함께 제공되는 첫 복합금융 사례다. 수은 자금은 인프라 부문에 6064만달러, EDCF는 신호·통신 시스템 현대화에 2억5161만달러를 투입한다.

수은자금이란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 도입한 수단이다. 수은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사업에 저리·장기의 금융을 제공한다.

수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인프라와 시스템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3사 중간지주사 출범 첫 통합 채용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3사가 개편 후 첫 인재 확보에 나섰다.

현대제뉴인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사는 하반기 대졸신입사원을 통합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두산인프라코어를 편입한 이후 건설기계 3사 통합으로 인재를 선발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이번 채용을 시작했다. 특히 현대제뉴인은 지난 8월 첫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게 된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로, 현대중공업그룹 인재채용 사이트를 통해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영업, 연구, 설계, 생산관리, 경영지원 등 전 직무영역이다. 입사지원자는 3개 회사 중 회사와 희망직무, 희망근거지를 선택해 입사지원을 할 수 있다. 모집기간 이후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 및 임원 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내년 초 입사하게 될 예정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전기전자 및 제어 분야에 한해 22년 8월과 23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산학 장학생 선발도 함께 진행한다. /김재용 기자 juk@

제주항공 임직원 '코로나 블루' 치료 나서

제주항공이 임직원들의 '코로나 블루' 치료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감성코칭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휴업과 휴직을 반복하고 원격근무 확대로 커지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밀레니얼세대로 구성된 '제주항공 주니어보드' 1기 모집을 시작한 것. 주니어보드는 회사 이슈와 조직 문화등 주제를 월 단위로 선택해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정리, 경영진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는 10월 6일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부음

▲박정희씨 별세, 배길태(프로농구 수원 KT 코치)씨 모친상 =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02-2262-4800.

▲김강민(부산시설공단 사회적가치실현팀장)씨 부친상 = 22일 오전 4시 부산영락공원 9빈소, 발인 24일 오전 8시 40분, 051-790-5069

현대차·삼성·LG, 국제 IDEA 디자인상 휩쓸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인 '2021 IDEA 디자인상'에서 선전했다.

22일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는 금상 1개를 포함해 총 3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가전 분야에서 각각 48개와 10개의 상을 받았다.

'IDEA 디자인상'은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며 1980년부터 시작한 북미 최고의 디자인상이다.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하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종합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하며 독일의 'iF 디자인상', '레드 닷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현대차, 아이오닉 5 '2021 IDEA 디자인상' 금상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자동차·운송 부문에서 최고의 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현대 블루링크 앱'과 '카퍼 디자인 테마'가 적용된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디지털 상호작용 부문에서 본상에 해당하는 파이널리스트를 받았다.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콘셉트카 '45'는 이미 지난해 'IDEA 디자인상'에서 자동차·운송 부문 동상을 받으며 일찌감치 글로벌 전기차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고유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완벽히 적용된 '아이오닉 5'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DEA 디자인상' 최고상



삼성전자는 2021 IDEA 디자인상에서 총 48개의 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금상 자동차 운송 부문 최고상 수상

삼성, 은상 7개 등 48개 휩쓸며 비스포크 큐브 에어 등 선정

LG '스탠바이미' 금상 등 10개 올해 세계 3대 디자인상 석권

을 수상하며 현대차의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전자, 2021 IDEA 디자인상 총 48개 상 수상

삼성전자는 '2021 IDEA 디자인상'에서 은상 7개, 동상 3개와 파이널리스트 38개로 총 48개의 상을 수상했다.

올해 가전 분야 2021 IDEA 디자인상 수상작은 ▲가정 ▲소비자 기술 ▲디지털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 등 20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상에 대해 "변화하는 가치와 혁신적 기술을 고려한 디자인들을 선보였으며, 제품뿐 아니라 인터랙션, 선행 콘셉트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다양한 디자인

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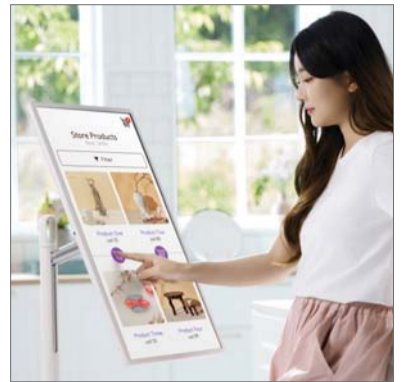
은상을 수상한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은 ▲무풍큐브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교체 가능한 전면 패널을 적용한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에어' ▲심플한 디자인으로 생활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무선청소기 '비스포크 슬림' ▲인피니티 스크린과 초슬림 디자인으로 최상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Neo QLED 8K' 등이다.

이 밖에 ▲최적의 요리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 '스마트싱스 쿡킹' ▲국가별 제품 조형 선호도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인 '디자인 프레임' ▲미래 스마트폰과 로봇 관련 콘셉트 디자인도 은상에 선정됐다.

동상에는 ▲프리미엄 가정용 프로젝트 '더 프리미어' ▲액자형 TV '더 프레임' ▲내부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비스포크 4도어 플렉스 냉장고' 등이 수상했다.

◆LG전자, '스탠바이미' 금상 포함 총 10개 상 받아

LG전자는 '2021 IDEA 디자인상'에서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LG



LG전자는 '스탠바이미'의 금상 포함 총 10개 상을 받았다. /LG전자

스탠바이미'가 금상을 수상하는 등 총 10개의 상을 받았다.

앞서 LG 스탠바이미는 '2021 iF 디자인상'과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본상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 열린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다.

LG 스탠바이미는 기존 TV와 차별화된 무빙스탠드 디자인과 함께 시청하는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인체공학 디자인이 특징이다.

LG전자는 ▲LG 올레드 에보 슬림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는 갤러리 스탠드 ▲곡선 디자인을 활용한 LG 사운드 바 에클레어 ▲심리스 디자인의 웹바디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 등 4개 제품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LG 스타일러, LG 코드제로 A9S 오브제컬렉션, LG 퓨리케어 듀얼정수기, LG 인스타뷰 씽큐 오븐,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스피커 등 총 5개 제품도 본상을 받았다. /한창대 기자 cd1@metroseoul.co.kr

'대한민국 명장'에 김주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부장

기계정비 끝없는 자기계발 결심 현대중그룹 총 31번째 명장 배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김주호 기술부장이 기계정비 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기술부장은 1985년 1월 입사해 중기계정비 및 시험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으며 1999년 기계가공 기능장 취득을 시작으로 2016년 건설기계정비 기능장과 중기계정비 분야 우수숙련기술자를 획득, 2017



대한민국 명장 김주호 기술부장(오른쪽)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에서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년에는 중기계정비 분야 인천시 미

추출명장에 선정됐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에 선정, 인하대 건설기계공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김 기술부장은 "제 손을 거쳐간 제품이 고객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스스로 기술 연마를 지속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기술 노하우를 제공,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력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식품관 투흙, 농가·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현대백·상생상회와 손잡고 온라인 상생 프로젝트 운영

현대백화점이 현대식품관 투흙을 통해 지역 농가·소상공인의 판로와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생 교류 플랫폼 '상생상회'와 손잡고 '온라인 상생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상생 프로젝트'는 서울시

'상생상회'에 입점된 중소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식품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흙'을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과 위생 및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대백화점은 온라인 판매 경험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상품 등록은 물론, 전문 스튜디오를 통한 상품 촬영, 유명 셰프 등과 협업한 '투흙 매거진' 스토리텔링 콘텐츠 운영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대백화점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현대식품관 투흙에서 과수 화상병(화상균에 의해 과수가 타들어가는 병)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충북 충주시의 사과,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강원도 흥천군 양조장에서 생산한 전통주를 판매한다.

다음달에는 현대식품관 투흙 내에 농·특산물 200여 개 상품을 농가에서 바로 배송해주는 '동행마켓'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상생상회 매장에서 현대백화점 직원이 '현대식품관 투흙' 종이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 /현대백그룹

숍인숍으로 론칭하고, 월 2회 이상의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